

조선로동당창건 75돐 성대히 경축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경사스러운 10월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사회안전군 장병들과 로동적위군, 붉은청년
근위대 대원들,

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영광스러운 10월명절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
부대 지휘관, 전투원동무들!

친애하는 동지들!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절이 왔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왜서인지 류레없이 간고했던 이해에 맞는
당창건절은 이 영광의 밤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창건 75돐을 맞으며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10월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내인
모든분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명절의 이밤 수도의 거리들과 여기
영광의 광장은 이렇듯 환희롭고 기쁨과 긍지
로 설레이지만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이
지금 전국각지의 수많은 당원동지들과 로동계
급들, 우리 혁명군대 장병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에 의해 지켜지고있다는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을 안아오고 지키기
위해 올해에 들어와 얼마나 많은분들이 혹독
한 환경을 인내하며 분투해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특히 올해에 예상치 않게 맞닥든 방역전
선과 자연재해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장
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
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없이 대할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가 인민군대의
마땅한 본연의 임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너무도 많은것을 말아안고 고생도 많은
우리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
모두와 함께 있지 못하는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우리 군대
장병들이 영광의 이 김일성광장에 오지
못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방역전선과 재해복구전선에서 용감히 싸우



고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처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
협뿐만아니라 방역과 자연과의 투쟁과 같은
돌발적인 위협에도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자기
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충효심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전군의 모든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자기들이 맡은 피해복구건설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를 또 다른 피해복구지역
으로 발걸음들을 옮긴 애국자들,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민중적인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
적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전투적인
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자연의 재난을 털고 새 마을, 새 집들에
보급자리를 편 세대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

과 기쁨만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
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비루스
에 의한 병마와 싸우고있는 전세계 모든이들에
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두손모아 마음속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
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모두는 일심전력하여 마련한 값진
성과와 로력적열매들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
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
습니다.

간고한 투쟁의 연속이었고 수없이 많은
적난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나온 우리 당의 75성상이 다 그러하였지만
특별히 올해는 정초부터 하루하루, 한결
한결음이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하여 참으로 간고하고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것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랑
스럽고 땀뻑한 마음으로 뜻깊은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세인이 경탄할 이 화폭자체가 우리를 괴롭
히고 막아나섰던 온갖 재앙들이 제압되고
우리가 내세웠던 정의로운 투쟁목표들이 빛나
게 달성되었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의 75번째 생일을 성대
히 맞이하고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자기 당의 생일을 전체
인민이 기쁨의 명절로, 대경사의 날로 성대히
경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이처럼
벅차고 환희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
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
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
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무엇보다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싶었습니다.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있는 몸쓸 전염병으로
부터 이 나라의 모든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웅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였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도 왜서인지
지켜냈다는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수 없습니다.

세상이 놀라지 않을수 없는 오늘의 이
승리는 우리 인민들스스로가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습니다.

(2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1면에서 계속)

그런데 이 세계에는 귀중한 우리 인민의 삶을 위협하고 해치려는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 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년초부터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도래하고 주변상황도 좋지 않아 고민도, 두려움도 컸습니다.

허나 우리 인민은 억척같이 뻗치고 일어나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주며 자신들의 운명을 완강히 지켜냈을뿐아니라 활기넘친 모습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을 강의하게 이겨냈습니다.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아름다운 인민, 이런 인민이 높은 애국심과 고도의 자각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면 무서운 재앙을 막아내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우리 인민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국가와 자기들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기에 모든것이 부족하고 뒤떨어진 나라의 방역부문이 일떠서게 되었고 남들같으면 상상할수도 없는 방역안정형세를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아직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단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해주고 자기 집일처럼 떠맡는 고마운 인민도 이 세상에 우리 인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행성에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비상방역도 해야 하고 혹심한 자연피해도 복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 나라뿐입니다.

이 모든 시련은 두말할것없이 우리의 매 가정, 매 공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아픔으로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탐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나라의 형편을 터놓으면 언제나 산악같이 일떠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국난을 타개해나가고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75성상 일편단심 우리 당을 받들고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서슴없이 바쳐 지켜주었습니다.

가장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헤쳐온 우리 당이 이 피어린 려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올수 있는 근본비결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 당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르며 우리 당의 위업을 지켜주었기때문입니다.

언제나 현명한 스승이 되어 지혜와 슬기를 주었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결사적으로 옹위하고 성심으로 받아들여주며

당의 구상과 로선을 빛나는 현실로 만들어준 력사의 전능한 창조자인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서 어찌 우리 당의 영광넘친 75년사에 대하여 한순간인들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당에서 대고조를 호소하면 천리마를 타고 호응했고 대건설을 작전하면 속도전으로 화답했으며 당의 결심을 물불을 가림없이 무조건 실천해내고야마는 위대한 인민이 항상 곁에 있었기에 우리 당은 언제나 든든하였고 어떤 곡경속에서도 이 땅에 기적의 년륜을 새겨올수 있었습니다.

나는 진함없는 충효심과 굴할줄 모르는 투지, 성실한 노력으로써 세상풍파를 다 뚫고 넘으며 위대한 10월명절을 승리의 단상에 떠올린 우리 인민의 모습에서 앞으로 75년이 아니라 750년, 7, 500년이라도 당을 따르고 지켜줄 하늘같은 힘을 온몸으로 뿌듯이 받아안게 됩니다.

동지들!
하늘같고 바다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인민의 신임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선택과 결심을 그 무엇이든 지지하고 받들어주고있습니다.

실사 그것이 더 큰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은 언제나 무조건적이고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이렇듯 강렬하고 진정어린 믿음과 고무격려는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수 없고 수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부이며 두려움과 불가능을 모르게 하는 무한대한 힘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바랄수 없는 최상최대의 신임이 있기에 나는 멸사복무의 사명감과 의지를 가다듬으며 무수한 도전들을 주저없이 맞받아나갈수 있었고 전쟁까지 각오해야 하는 결사전에도 나설수 있었으며 사상초유의 대재앙에도 강력히 대처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민을 섬기고 모시고 투쟁하는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엄숙히 확인합니다.

존경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고마움에 차넘치는 진정 정중히 삼가 올립니다.

동지들!
우리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림없이 잘살게 하는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사명이요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우리 인민의 존엄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수 있게 평화수호를 위한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놓았습니다.

위풍당당히 정렬한 오늘의 열병대오는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혁명군대를 어떻게 키웠는지, 또한 그 군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똑바로 알수 있게 할것입니다.

불과 5년전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과 대비해보면 누구나 잘 알수 있겠지만 우리 군사력의 현대성은 많이도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해볼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혁명리익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충실하고 강력한 국방과학기술대군과 군수로 동계급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만큼 발전하고 변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있거나 맞닥들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충분히 통제관리할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우리 식,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 발전속도와 질과량이 변해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거나 위협을 줄수 있는 세력은 선제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제일 확실하고 튼튼한 국가방위력으로 규정했으며 그를 실천할수 있는 군사력보유에 모든것을 다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한 갱신목표들을 점령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자위적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입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람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것뿐입니다.

만약 힘이 없다면 주먹을 부르짖고도 흐르는 눈물과 피만 닦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주권과 우리 령토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하며 우리 인민의

힘과 녀이 깃든 강위력한 최신헌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수 없으며 조선인민의 앞길을 감히 막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어나갈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러보는 부흥번영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올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혹독한 고난속에서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체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으로 이행하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일떠설수록 온갖 반동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예상치 않았던 난관들도 닥쳐들수 있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겪은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그 모든것을 격파할 힘이 있고 자신심이 있습니다.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다져진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있고, 우리 사회주의가 키워내고 마련한 인재력량과 자립의 밑천은 분명 우리의 전진을 추동하고 가속하는 강력한 힘으로 될것입니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수한 고난과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남들이 엄두도 낼수 없는 모든것을 다 해낸 우리 당과 인민은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으로의 진군을 시작할것입니다.

나는 모든 당조직들과 정부, 정권기관, 무력기관들이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레일을 안겨주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며, 정성을 다해 일하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리상은 위대하며 그 리상이 실현될 날은 꼭 옵니다.

위대한 그 리상을 실현함에 총력을 다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해나가는 길에서 누구나 체감할수 있는 혁신과 발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강해졌으며 시련속에서 더더욱 강해지고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모두다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갑시다.

끝으로 다시한번 전체 인민이 무병무탈 해주신데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어주시는 마음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10월 10일 0시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엄숙한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한 대표자이시고 우리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식 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노래 《빛나는 조국》이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여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격정에 넘치신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례없이 혹독한 격난을 뚫고 헤치며 일심전력하여 마련한 값진 성과와 승리를 안고 위대한 10월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낸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와 위대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미래를 수호하며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으로의 진군을 시작할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진정어린 믿음이 구절구절마다에 뜨겁게 넘쳐흐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어머니를 우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이어 승엄한 국기계양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조선인민군 원수에게 총참모장인 박정천 조선

인민군 원수가 열병부대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리병철 조선인민군 원수가 열병부대들을 점검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리병철 조선인민군 원수가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된 공화국무력의 열병종대들이 총참모장인 박정천원수의 구령에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이 항일전의 말발굽소리높이 백두광야를 주름잡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자랑찬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명예기병종대가 팽개재소장의 인솔하에 호기차게 달려나갔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과 4대강군화포선을 제시하시고 탁월한 평균술로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최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경례를 드리며 열병대원들은 목청껏 《만세!》의 합성을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백전필승의 영용한 기개를 떨치며 지축을 울리는 열병대오들에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수도의 밤하늘에서는 위대한 당의 슬하에서 자라나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75년의 자랑찬 력사에 충성의 함로, 백승의 함로만을 수놓아온 주체적항공무력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열병비행이 진행되였다.

대관현악의 장쾌한 선율이 광장을 진감하는 속에 최정예혁명군대의 강위력을 시위하며 장갑차종대를 선두로 한 기계화종대들의 열병진군이 시작되였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쇠주먹인 주력망크종대가 김주삼총장의 인솔하에 평음을 울리며 전진해나갔다.

불수룩 배심든든해지는 최강의 무력인 미더운 포병무력의 진군화폭이 련이어 펼쳐졌다.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조선로동당의 자위적핵억제력의 상징인 로켓트종대들이 기세찬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적들을 공포와 진물속에 몰아넣었던 력사적인 2017년 11월 29일 조선의 존엄과 힘을 우주만리에 떠올린 자랑을 안고 장창하상장이 인솔하는 대륙간탄도로켓 붉은기 제1중대 종대가 진군해갔다.

김정식상장의 인솔하에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권위와 안전이 실려있는 거대한 핵전략무력이 지심을 무겁게 누르며 들어서는 광장이 격정과 흥분의 열파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최악의 시련속에서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 식으로 설계 제작한 주체식최첨단 전략무기들을 커다란 민족적자긍심을 안고 바라보며 관중들은 결사의 공격정신으로 협로역경의 고비를 넘고 넘으시며 부국강병의 세기적숙원,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신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담아내고 나아가는 주체병기들의 웅진장중한 모습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의 앞길을 막아나서는 어떤 도전세력도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우리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을 진감하는 가운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이 땅위에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을 일떠세워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을 이룩한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은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며 사회주의의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폭풍노도쳐나아가는 위대한 인민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가 10월 11일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축포가 터져올랐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를 쉼없는 대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평화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숭고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리 목청껏 열광의 환호를 울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당창건 75돐을 대정치축전으로, 일심단결의 절대적힘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하는 혁명적계기로 빛내인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 열병식참가자들, 참관생원들, 평양시민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을 보았다.

노래 《우리의 국기》가 울리는 속에 공화국기와 당기가 숭엄히 게양되었으며 조선로동당마크가 빛을 뿌리고 상공에는 《위대한 향도》의 제명이 새겨졌다.

출연자들은 서장 《영원한 백두의 행군길》과 《당은 우리의 향도자》,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격동의 시대》, 《민족의 영광》의 장들, 종장 《우리에게 위대한 당이 있다》로 구성된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리 더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새로운 발전과 변혁의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인민을 고무해주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경축대회와 군중시위,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 축포야회 성황리에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회가 10월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축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축하문을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였다.

축하문은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영광스러운 당, 불패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상징이시며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인민들의 다함없는 홀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

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축하문은 조선로동당을 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이 땅위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펼쳐주시였으며 최강의 힘을 비축한 영인불패의 강대국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민족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10월의 조국강산을 무한한 걱정과 환희로 진감시키는 조선로동당창건, 로동당만세소리는 운명의 태양이시며 삶과 행복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리 이 나라 전체 인민이 삼가 드리는 고마움의 세찬 분출이라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일원단심 믿고 따르려는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공동축하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봉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경축대회 보고를 하였다.

경축대회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 제8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하며 새로운 발전과 변혁을 향하여 역세게 진군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불타는 충성과 애국의 의지를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군중시위가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군중시위 시작이 선언되자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로동당의 품에서 영웅적인민으로 성장한 궁지드높이 시위대오가 장엄한 행진을 개시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강대한 우리 국가의

영상인인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시위대렬이 광장에 들어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풍선이 날아올랐으며 경축의 꽃바다가 새차게 설레이었다.

대를 이어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이 넘쳐나는 광장에 위대한 우리 국가의 상징인 공화국기와 백전백승의 기치인 조선로동당기를 대형기폭으로 펼친 시위대렬들이 숭엄히 들어섰다.

인민의 력사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행로를 보여주며 《우리 운명의 향도자 백전백승의 기치》의 글발이 새겨진 가랑뿔과 각 도 환호대렬이 광장을 굽어쳐갔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이 10월 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 고갈 일심의 대화가 장엄히 굽어쳐간

광장으로 청년대군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불굴의 기상을 떨치며 해불대렬들이 입장하였다.

해불행진시작이 선언되자 어머니당에 대한 무한한 홀모의 정으로 뛰어넘는 불의 바다위에 경축의 글발들이 연이어 새겨지고 광장상공에서는 백전백승의 표대인 조선로동당마크를 형상한 불꽃대형이 눈부신 채광을 뿌리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청년동맹기발을 대오앞에 펼칠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따라 당 제8차대회를 향하여 폭풍노도 처 나아갈 계승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영광의 10월명절을 환희롭게 장식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축포야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휘황찬란한 레일을 앞당겨갈 인민의 드높은 리상과 열정이 경사스러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림시복구된 위협천만한 협곡철길을 달려 멀고 험한 검덕땅까지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인민군 지휘성원들은 커다란 감격과 격정속에 영접하였다.

불과 1개월 전 당 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태풍 피해가 혹심하고 조건이 제일 불리한 검덕지구복구 전투에 인민군부대들을 동원할데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에게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으로 심장의 피를 필뿔 풀이며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결사관철, 단숨에의 기상으로 불꽃튀는 철야전투를 벌려 검덕지구에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 2, 300여세대에 대하여 총공사량의 60%계선을 돌파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실지 와보니 검덕지구의 피해가 생각보다 대단히 컸다고 하시면서 혹심한 피해흔적을 말씀히 가시내고 복구건설의 터전을 힘차게 다져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노력적취혼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사장을 돌아 보시면서 건설물들의 질이 높다고, 시공을 하나하나 간지게 하고 정성을 들였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며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의 일숨씨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건설에 바친 군인들의 량심과 숨은 노력은 그 집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알아주고 인민들이 평가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한 인민군대의 정성이 건설물마다에 깃들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검덕지구피해복구 전투에 동원된 부대, 구분대들이 앞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태위험성이 있는 도로와 철길구간들에 대한 응벽공사를 콩크리트로 견고하게 하고 강화천정리도 질적으로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이 준 성스러운 전투임무를 받아안고 각지의 피해복구전선들로 급파되어 대격전을 벌리며 영웅신화와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이 있어 영광스러운 우리 당장군 75돐을 성대히 경축할수 있었고 경축의 광장이 더욱 빛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재해복구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있는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피해복구건설의 전례에 선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을 고무격려하기 위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그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위문편지도 보내주면서 정치적, 사상적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앙양된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들의 겨울 피복공급정형과 후방공급실태를 료해하시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군인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방역학적요구에 맞게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발생하면 적시적인 치료대책을 세울수 있게 조건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이달말까지 새 살림집을 안겨줄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시면서 공공건물과 개별적주민세대들에서 분숙하며 고생하고있는 리제민들의 식량과 생활필수품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건설장으로 가시는 령길에서 산비탈면에 단층살림집들이 들쭉날쭉 비좁게 들어앉아있는 광경을 보시고 못내 심려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반세기도 훨씬 전에 건설한 살림집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우리가 재해로 무너진 집들만 새로 지어줄 생각을 하였지 너무나 기막힌 환경과 살림집에서 고생하고있는 인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다고, 이번 저런 집들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 주지 못하는것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검덕의 로동계급을 나라의 맏아들이라고, 검덕지구가 인민경제의 중요명맥이라고 중시한다고는 하였지만 실지 검덕지구 인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해 응답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여 이렇게 뒤떨어진 생활환경속에서 살게 한데 대하여 심각히 자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지방인민들의 살림형편을 보고서도 외면한다면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이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고 낮대기나 하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큰물피해를 받은 천여세대나 다시 건설해놓는것으로써는 정말 량심이 허락치 않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자연재해가 들이닥쳐 하늘이 낮은 집들을 무너뜨려야만 따라가면서 새 살림집들을 짓고있는데 지방건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얼마전에도 말하였지만 지방건설목표를 계획적으로 세우고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흥과 검덕, 룡양의 세기적인 락후를 짝 털어버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우리 나라 굴지의 대규모 광물생산기지인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과 설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피해복구건설은 1단계로 정하고 80일전투기간 총력을 다하여 질적으로 완공하며 2단계로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할 5개년계획기간에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에 2만 5, 000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떠맡아 인민군대와 함께 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을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리겠다고 하시면서 검덕지구건설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적으로 중시할 정책대상을 정하면 라산부터 앞세우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우는소리만 늘어놓고 분주탕이나 피우는 국가계획기관들이 손을 내밀지 않고 인민군대가 세멘트, 강재, 연유를 비롯한 건설자재도 전적으로 맡아 명년부러 매해 5, 000세대씩 년차별로 건설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설계부문에서 80일전투기간 검덕지구건설총계획안을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 하시면서 설계에 앞서 반드시 현지답사를 하고 자연재해에도 격정없고 생활상불편이 없도록 부지를 바로 정하며 인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여 살림집의 외부와 내부형성안을 잘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검덕지구에 단층, 소층, 다층, 고층의 살림집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자고 하시며 지방군, 산골군들에는 울망출망한 단층살림집들만 밀집시켜 건설하는 낡은 틀을 깨고 검덕지구를 완전히 일신시켜 지방건설에서 또 하나의 본보기, 혁명을 창조하도록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검덕지구가 앞으로 그 어떤 큰물이나 태풍에도 끄떡없게 강화천들의 강바닥과기 와 장식쌓기를 잘하고 치산치수사업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또다시 인민군대를 믿고 세기적인 방대한 투쟁과업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

와 리상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기 위한 80일전투의 불씨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고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는 곧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우리 당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우리 조국의 부름 없는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증척되는 재난속에서 무섭게 솟구치게 될 기적의 문명을 위해 고심분투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결사의 공격정신에 우리의 원수님께서만이 결심하시고 실천할수 있는 달대한 배짱, 대웅단이라고 궁극드높이 화답하며 검덕지구피해복구건설 임무를 영예롭게 완수하고 이 고장을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변혁을 안아오는 광산도시의 본보기로, 전대미문의 신화적인 기적이 탄생하는 곳으로 전변시킬 불같은 의지로 격양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다시한번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함경남도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함경남도 신포시와 흥원군을 비롯한 동해지구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중환수도당원사단의 지휘성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장건경축행사기간 마음은 늘 어렵고 힘든 초소에 나가있는 수도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곁에 있었다고, 그들이 보고싶고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고무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이 제일 믿는 핵심력량인 수도당원들이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로 용약 달려나가 한시바베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강력히 지원할것을 부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제1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은 끊어진 수신키구간의 도로를 복구하며 전투장으로 진출하여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착공 18일 만에 함경남도 흥원군 운포로동자구, 경포로동자구와 리원군 학사대리에 147세대

의 현대적인 문화주택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10월명절전으로 맡겨진 전투임무를 완수하고 피해가 제일 심하고 복구실적이 뒤떨어진 또 다른 지역들에 새로운 전투장을 전개하고 또다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맹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타지에 나와 수도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땀과 열정이 깃든 살림집들을 오랜 시간 정겹게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문건설자들 못지 않게 살림집들을 손색없이 잘 지었다고, 이 집들은 수도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의 결정체이라고,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의 전투력이 실천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우리 수도핵심당원들의 당성, 인민성, 혁명성이 검증되었으며 그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투쟁열이 피해복구전역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전체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과 혁신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복구건설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도핵심당원들을 지방건설투쟁에 동원시킴으로써 나라가 어려울 때 당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 당원들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줄수 있게 되었고 중앙과 지방, 온 나라가 시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주의 국풍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사는 방해하고 조건도 불리하였으나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자랑스런 결실은 당원들의 불굴의 심장에 불이 달리고 신념이 불탈 때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낳고 이 세상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사기간 치열한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서로 허심하게 배우는 집단주의적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자연재해복구건설전역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건설경험교환 등 경쟁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련대적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날씨가 추워지는데 맞게 당원전투원들의 겨울용피복과 생활용품, 자재,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며 치료예방대책도 잘 세워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이 함경남도피해복구전투장들에서도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우리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구현된 새 살림집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며 기적적인 성과를 확대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이

당에서 지적한대로 건축은 자기 시대의 사상과 문명의 높이가 그대로 반영되는 사상문화의 직관물이라는것을 바로 인식하고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정성으로 깨끗한 진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말은 살림집건설을 제기일에 질적으로 훌륭히 완공하는 빛나는 성과를 련속 쟁취하고있는것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이고 새로운 문명의 개척자인 우리 군대만이 해낼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앞으로 지방건설에서 해당 지역의 지대적 특성을 잘 살리는 방향에서 부단히 새로운 전형과 본보기를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웅대한 지방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설계기관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감독부문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 또한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문제중 하나이라고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에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안의 일부 단위들에서 설계와 건설공법의 요구를 어기고 건설을 날림식으로 망탕 하는 고약하고 파렴치한 건설법위반행위들이 제기되었는데 엄하게 문제를 세우도록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휴경화제로 살림집구획내 도로들을 포장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도입해볼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마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며 주변산들에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도 전망성있게 잘해야 한다고 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돌아본 살림집들가운데서 무엇보다 수도당원사단이 건설한 살림집들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수도당원들의 손으로 일떠세운 집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뿌듯하다고, 수도당원사단이 건설한 살림집은 피해복구건설에서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기준이며 모두가 따라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도당원사단들이 당에서 준 전투임무를 받고 이동전개한 지역들에서도 더 높은 자각과 열의를 안고 새로운 창조대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도당원사단의 전체 당원들에게 다시한번 전투적인사를 보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건설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피해지역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 줄 완공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이악하게 투쟁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고맙습니다!》

정령 감격이 없는 들을 수 없었다. 눈물이 없는 받아안을 수 없었다.

황홀한 10월의 밤 하늘가에 울려 퍼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절절하고 눈물젖은 그 말씀, 《고맙습니다!》

은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이처럼 벅차고 환희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날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아보면서 이 시작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한 우리 인민들에게 러닝고심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오늘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무병무탈하게 서서 정발 고맙습니다라고 하시 때, 광장이 울먹였고 새찬 격정의 파도도 출렁였다.

세상을 무성케 휘둘렀던 악성전염병과 혹독한 자연의 재난으로부터 온 나라 인민 한사람한사람을 소중히 지켜 주시고 혈투로 따듯이 보살펴 주시기도, 그들 모두에게 이렇듯 환희로운 승리의 날, 경축의 밤, 진정한 인민의 명절을 마련해 주시기도 오히려 인민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는 자애로운 아버지 김정일원수님.

참으로 위대한 덕망을 지닌 분이시더. 이 행성의 국가지도자들 중에 인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지 않는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 그들 중 어느 누가

이렇듯 인민에게 고마움의 사랑과 진정을 쏟아부은적이 있었는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깎고리 바치시고도 인민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는 이런 령도자, 이런 고마움분이 세상 어디에 또 있었나.

진정 인민으로부터 고마움의 큰절을 받으셔야 할 분은 볼보다 뜨거운 심장으로 인민을 품어안으시고 심신을 깎고리 기울여 인민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우리 원수님이시더.

그이께서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인민에게 하신 고마움의 인사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의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히 맞이하는 경축광장의 높은 언덕에서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이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며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몇 사 북 무해 나 아 가 자 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멀사 북 무해는 그 성스러운 부름과 함께 흐르는 이 땅의 날과 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의 령도자.

그에게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정치적인지나 령도자의 의무기 전에

랑심이고 찬풍이다. 그의 사랑과 정은 인민의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들었다.

열고 외친 곳을 가림없이 따뜻한 빛으로 흘러들고 제 일 아픔이 크고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에 어머니의 손길로 제일 먼저 안겨들었으며 누구보다 힘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가슴마 데 더 큰 힘과 용기로 솟아올랐다.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에게 격은 설음이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었다. 문명의 새 거리, 궁궐같은 새 집들에 과학자, 교육자, 근로자들을 제일 먼저 안겨 주시었다.

그의 사랑과 정은 인민이 아플 때 더 뜨겁게 품어 주었고 어려울 때 더 억센 손길로 인민을 이끌어 주었다.

재난과 시련이 련이어 들이 닥쳤던 이해의 날과 달들이 다시금 돌이켜진다.

세기를 침체와 불안에 빠뜨리고 인류에게 불행의 눈물과 영리별의 고통을 몰아온 악성전염병대역양도 유독 고마움분이 세상 어디에 또 있었나.

전례가 없게 련이어 열린 당과 국가의 중요회의들에서는 인민의 생명안전문제가 첫 의제로 토의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 주신 강력한 조치들은 공화국인민에게 지극한 위안과 애도의 보금자리를 안겨 주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행복의 웃음넘치는 이 땅의 평온을 시샘하듯 류례없이 련속 들이 닥친 자연의 대역양은 왜 그리도 심술맞았단가.

대풍, 폭우, 산사태... 하지만 자연의 광란이 할퀴고

간 그 자리마다에서는 가산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에 목매어 흘리는 고마움의 눈물이 새겨졌다.

큰물이 모든것을 삼키며 휩쓸어간 대청리의 험한 감탕길을 몸소 운전대를 잡고 헤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홍탕범벽이 된 차문을 열고 나서신 그이를 에워싸고 수재민들은 무서운 재난과 불행속에서 운명의 어버이를 제일 먼저 보냈던 것이 너무나 꿈만 같고 너무도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평양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자라나고 하시며 폐허의 잔해를 헤치시고 함경남도를 찾으시어 한자한자 새기신 공개서한을 받아안았을 때 인민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었다.

이 나라의 인민 어느 누가

감탕길을 헤쳐며 피해지역을 밟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발에 묻은 감탕 거둬야드린 것처럼 있었으며 태풍피해가 가지도 않은 북변의 돌서덜길을 걸으실 때 어깨진 벽돌조각을 치워드린 적이 있었는가.

오시어서는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보장에 이르러가 시 세심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전보다 더 크고 훌륭한 새 집을 안겨 주자고 하시니 하늘같은 사랑, 해빛같은 의정애에 《경애하는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웨치며 목매어 울기만 하지 않았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승용차장 진창속에 빠뜨린 것을 알고 림지거처지에 의운 노래를 벗겨가자고 내의바람에 맨발로 허리치는 감탕을 헤쳐며 달려간 대청리의 농장원들, 그속에서도 노래가 젖을가봐 머리우에 높이 들

고 할만큼 달려와 원수님, 다시는 험한 길을 걸지 마십시오, 우린 일없습니다라고 거듭 아뢰인 소박한 인민들, 차는 떠났으나 인민들은 나래를 들고 계속 원수님을 따

라고 원수님께서는 달리는 차를 세우고도 일없이 어서 돌아가라고 거듭 이르신 그 화복은 격정의 눈물없는 진정한 다 새길 수 없다.

그날 한 너윈은 말했다. 《우리 원수님께서 가진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글세 내가 왜 이 나라를 가지고 갔을가요. 이불을 가지고 달려가 원수님 가시는 험한 길에 깔아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자꾸만 이 마음을 허ष입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폭풍길, 사치판도 서슴지 않았을지 원수님시기에 가시는 길에 비단필을 깔아

드리고 꽃주단을 펼쳐드리고 싶은것이 이 나라 인민의 진정한 정이다.

오로지 아버지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시기에 위대한 인민을 위해 떠난 고교를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보여주고 인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나갈것이라고, 하늘같은 인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던 것이다.

인민을 위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인민을 위해 멀사 북 무해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의 인민들은 역경속에서도 재난속에서도 무병무탈하여 10월의 환희로운 광장에 승리의 모습으로 당당히 설수 있었을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인민으로부터 고마움의 큰절을 받으셔야 할 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지만 그이께서는 수령님도 장군님의 마음속까지 합쳐 자신의 진정한 《고맙습니다!》, 이 뜻깊은 말씀에 담으시었다.

정령 그이는 이 나라 인민이 한생 마르코 모실 자애로운 아버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후손만대의 행복도 다 맡길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우리 령도자시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으로 행복한 인민, 그의 신념과 의지로 강직한 인민, 그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인민은 가슴속에 차 넘치는 존경과 흠모를 한껏 담아 부칠것 웨친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무진막강한

공적의

과

기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최정예군으로 장엄강화된 공화국군대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명예기병중대의 행진으로 부터 시작된 열병식에서는 특해공군의 열병중대들, 탕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중대들과 진분병중대들, 각급 군사학교중대들과 로동적위군과 붉은청년군위대중대들을 비롯하여 각 열병중대들이 자랑스런 전투적 행진으로 새겨진 성스러운 군가들을 휘날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하였다.

서리밭 총검을 비껴는 인민군장병들의 씩씩한 열병행진이 이어 각종 현대적무장장비들이 장쾌한 돌음을 울리며 광장을 누비었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적주역인 주력대중대, 최강의 무력으로 자라난 미더운 포병부대, 최신형의 전략무기체계를 완비한

무적장군의 위용을 과시하며 광장을 누빈 로켓중대들, ...

모든 볼수록 너무나 장하고 가슴 뭉클하게 해주는 시뻐발사장들도 있었다. 지척에서 열병대오와 군사장비들을 바라보는 경축대표들의 얼굴에서도, TV앞에 마주앉아 시종 열병식장면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온 나라 남녀로소의 얼굴들마다에도 경탄과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우리 군대가 정말 강하다. 저 무장력이면 무서울게 없고 누구나 우리를 다칠수 없다. 정말 대단하다.

저마다 감탄을 터친 공화국무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의 과시였다. 그들수록 모두의 가슴을 더욱 울려쭈근들은 이 위대한 공적을 마련해주시려고 헌신의 로고들을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다.

공화국무력은 저절로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그 상상성을 초월하는 질적인 변화와 발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조국애, 희생적인 헌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시려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평화번영과 복락을 위하여 인민군부대들

을 쉬임없이 찾으시고 각종 군사훈련들도 지도해주시었으며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새 병기제작을 위해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도 찾아주신 헌신의 그 길에서 오늘과 같이 세상이 주목하는 화려한 병기들도 태어나고 인민군대의 위력이 최대한 강화되게 된 것이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할하려는 저대세력의 침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국가발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울이신 그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방위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독립과 우리 령도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최정예군대로 자라난 조선의 군대. 이 강군이 있어 공화국은 더욱 억척지고 승리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배 길 남

를 쉬임없이 찾으시고 각종 군사훈련들도 지도해주시었으며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새 병기제작을 위해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도 찾아주신 헌신의 그 길에서 오늘과 같이 세상이 주목하는 화려한 병기들도 태어나고 인민군대의 위력이 최대한 강화되게 된 것이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할하려는 저대세력의 침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국가발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울이신 그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방위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독립과 우리 령도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최정예군대로 자라난 조선의 군대. 이 강군이 있어 공화국은 더욱 억척지고 승리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이 강군이 있어 공화국은 더욱 억척지고 승리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배 길 남

조선의 축도

전과 시련이 만만치 않았다. 년초부터 세계를 휩쓴 파괴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공포에 빠트리고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전쟁을 치러야 하였고 련이어 엄중한 자연의 대역양을 가시게 하는 파쇄복구전도 하여야 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대역양의 그 자리에 나와 우리 학생들도 서있었던 것만 같아 눈물이 솟아나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광장에 울려 퍼진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자자구구 울리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연설에 걸고잡게 이 땅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격정에 겨워하는 이야기들이다.

어제 그렇지가 않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절절한 령도자의 뜨거운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을 공화국인민들모두가 가슴에 넘쳐들고 받아안았다.

새겨볼수록 이 가슴도 후덥게 달아오르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 든다. 지구상에 나라는 수백이여도 과연 어느 나라 령도자가 이런 헌신과 고백을 인민들앞에 스스로 펴놓아 지 놓았었던가. 이

우리의 패일은 더 행복할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사적인 연설은 온 나라를 커다란 감격으로 설레게 하였다.

우리의 패일은 더 행복할것이다

수필 온 나라가 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시작하시자마자 저희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수 없었습니다.》

《잠말 그이께서 연설하시는 기간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목이 짝 메어왔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대역양의 그 자리에 나와 우리 학생들도 서있었던 것만 같아 눈물이 솟아나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광장에 울려 퍼진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자자구구 울리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연설에 걸고잡게 이 땅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격정에 겨워하는 이야기들이다.

어제 그렇지가 않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절절한 령도자의 뜨거운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을 공화국인민들모두가 가슴에 넘쳐들고 받아안았다.

새겨볼수록 이 가슴도 후덥게 달아오르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 든다. 지구상에 나라는 수백이여도 과연 어느 나라 령도자가 이런 헌신과 고백을 인민들앞에 스스로 펴놓아 지 놓았었던가. 이

수필 온 나라가 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시작하시자마자 저희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수 없었습니다.》

《잠말 그이께서 연설하시는 기간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목이 짝 메어왔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대역양의 그 자리에 나와 우리 학생들도 서있었던 것만 같아 눈물이 솟아나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광장에 울려 퍼진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자자구구 울리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연설에 걸고잡게 이 땅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격정에 겨워하는 이야기들이다.

어제 그렇지가 않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절절한 령도자의 뜨거운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을 공화국인민들모두가 가슴에 넘쳐들고 받아안았다.

새겨볼수록 이 가슴도 후덥게 달아오르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 든다. 지구상에 나라는 수백이여도 과연 어느 나라 령도자가 이런 헌신과 고백을 인민들앞에 스스로 펴놓아 지 놓았었던가. 이

수필 온 나라가 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시작하시자마자 저희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수 없었습니다.》

《잠말 그이께서 연설하시는 기간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목이 짝 메어왔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대역양의 그 자리에 나와 우리 학생들도 서있었던 것만 같아 눈물이 솟아나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광장에 울려 퍼진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자자구구 울리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연설에 걸고잡게 이 땅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격정에 겨워하는 이야기들이다.

어제 그렇지가 않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절절한 령도자의 뜨거운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을 공화국인민들모두가 가슴에 넘쳐들고 받아안았다.

새겨볼수록 이 가슴도 후덥게 달아오르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 든다. 지구상에 나라는 수백이여도 과연 어느 나라 령도자가 이런 헌신과 고백을 인민들앞에 스스로 펴놓아 지 놓았었던가. 이

수필 온 나라가 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시작하시자마자 저희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수 없었습니다.》

《잠말 그이께서 연설하시는 기간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목이 짝 메어왔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대역양의 그 자리에 나와 우리 학생들도 서있었던 것만 같아 눈물이 솟아나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광장에 울려 퍼진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자자구구 울리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연설에 걸고잡게 이 땅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격정에 겨워하는 이야기들이다.

어제 그렇지가 않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절절한 령도자의 뜨거운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을 공화국인민들모두가 가슴에 넘쳐들고 받아안았다.

새겨볼수록 이 가슴도 후덥게 달아오르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 든다. 지구상에 나라는 수백이여도 과연 어느 나라 령도자가 이런 헌신과 고백을 인민들앞에 스스로 펴놓아 지 놓았었던가. 이

수필 온 나라가 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시작하시자마자 저희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수 없었습니다.》

《잠말 그이께서 연설하시는 기간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목이 짝 메어왔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대역양의 그 자리에 나와 우리 학생들도 서있었던 것만 같아 눈물이 솟아나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광장에 울려 퍼진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자자구구 울리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연설에 걸고잡게 이 땅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격정에 겨워하는 이야기들이다.

어제 그렇지가 않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절절한 령도자의 뜨거운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을 공화국인민들모두가 가슴에 넘쳐들고 받아안았다.

새겨볼수록 이 가슴도 후덥게 달아오르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 든다. 지구상에 나라는 수백이여도 과연 어느 나라 령도자가 이런 헌신과 고백을 인민들앞에 스스로 펴놓아 지 놓았었던가. 이

수필 온 나라가 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시작하시자마자 저희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수 없었습니다.》

《잠말 그이께서 연설하시는 기간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목이 짝 메어왔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대역양의 그 자리에 나와 우리 학생들도 서있었던 것만 같아 눈물이 솟아나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광장에 울려 퍼진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자자구구 울리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연설에 걸고잡게 이 땅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격정에 겨워하는 이야기들이다.

어제 그렇지가 않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절절한 령도자의 뜨거운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을 공화국인민들모두가 가슴에 넘쳐들고 받아안았다.

새겨볼수록 이 가슴도 후덥게 달아오르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 든다. 지구상에 나라는 수백이여도 과연 어느 나라 령도자가 이런 헌신과 고백을 인민들앞에 스스로 펴놓아 지 놓았었던가. 이

시초

위대한 인민사랑의 메아리

10월의 밤, 영광의 밤이여!

김태룡

그 누가 밤은 안식이라 했던가
그 누가 밤은 고요한 정적이야 했던가
10월의 밤 여기 평양의 김일성광장은
누리물 떨치는 환호로 세차게 끓어
번졌다
장쾌한 만세의 함성으로 뒤울렸다

험한길 남먼저 달려오시여 그이 베푸신
사랑과 은정 류달리 깊고깊어
재난속에서도 악몽에 시달림없이
낮이나 밤이나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았고
세계를 휩쓸며 기승부리는 병마도
우리 생활의 기쁨은 갈아낼수 없었으니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을 터쳐
인민에게 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 인사, 그 감사는 우리 인민이
그이께 올릴 감사였더라
인민의 생명보다 귀중하겠 없다시며
새해 정초부터 방역전선의 진두에
서시여

주시는가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주시서
정말 고맙다고
한명의 악성비루스피레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아, 진정 누가 올려야 할 감사이고
정녕 어느분이 받으셔야 할 인사였던가
그이의 감사 분에 넘치는 그 인사에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쏟으며 목메인 인민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터치지 못했거니

모르니다
하나 이 땅의 인민이 흘리는 눈물은
슬픔과 불행이 아닙니다
가슴을 허비는 고통도 아픔도
앞날이 막막한 허무와 비판도 아닙니

다, 자애로운 김정은원수님
우러러 친근하신 우리의 어머니
영원히 따르며 받아들여갈 인민의 진정
방울방울에 고이고이 담아실고서

아, 영광의 밤이여!
이 눈물로 아름답고 강대한 내 나라
이 눈물로 일심단결을 떨치는 내 나라

오, 영광의 밤이여!
이 행성에 다시 없는 행복의 눈물
입니다
운명의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 품에 안기어 누리는 복된 삶을

어이 그렇지 않으랴
그리고 흠뻑하며 따르는 우리의
정도자
환하신 미소로 경축의 단상에 서게시
였나니
사랑으로 젖어든 우렁우렁하진 그 음성
인민의 가슴에 격동의 해일 일으켰
어라

인민을 지켜 인민의 아픔 가셔주시려
고생도 많으신 우리 어머니이시기에
아, 10월의 밤이여
인민의 가슴에 그토록
강렬히 굵아진것은 무엇이었던가

강풍과 폭우로 휘말린 마을과 전야들
험한길 헤치며 남먼저 찾아가시여
인민들 마음에 밝은 희망 안겨주시고
훌륭한 보금자리 눈부시게 펼쳐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우리 어머니께

그이의 열화같은 감사 그것은
하늘처럼 떠받든 인민에게 드리신 경의
역척같이 풀어안으신 인민에 대한
세상 제일 친근하신 어머니의
끝없는 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던가
김일성광장 가득히 채운
오, 열병의 대오여
폭풍같은 환호속에
위대한 령장 우러러 행진해가는
장엄한 철의 흐름이여!

오, 주석단에서 손들어 답례를 보내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러르는 가슴마다 불같이 뜨겁구나
저 영예로운 대오와 승걸도 보폭도
맞추며
원수님 높이 받들어가는
인민의 이 궁지, 끝없는 행복이여!

얼마나 기다려온 이날이었더라
얼마나 뵈고싶었던 원수님이지더나
쌓이온 그리움과 간절함이
화산처럼 터져올라 눈부신 10월의 밤
정도자와 인민이 함께 하는 행복의 밤

어버이시여, 우리의 원수님이시여
이밤만은 경축의 이밤만은
부디 만사를 다 잊으시기를
축하의 꽃물결 기쁨속에 계시기를
바라는
이 하나의 진정 이 하나의 열망이었
나니

인민에 대한 사랑 그러도 열렬하시여
우리 원수님
자신께서 받으실 감사마저 거듭 돌려

원수님의 인민된 한없는 궁지안고
목청껏 터치노라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열병광장의 메아리

김윤식

어려있어라
진두에 나뭇기는 저 궁기마다엔
불패의 군력으로 내 조국 지켜
세기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이룩
하신
절세의 위인들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

그이 땀겨울에 이 땅엔 전쟁의 위험
영영 풀아낸
강대국의 력사 찬란히 펼쳐지고
그이 계시기에 횡포한 자연도 병마도
인민의 밝은 웃음 빼앗지 못했거니

생각도 깊어라
이밤을 위해 우리의 원수님
새해 정초부터 10월의 이날까지
고심과 로고로 지새우신 그방들을
어찌 눈물없이 헤일수 있으랴

세상에 다시 없을
잠들줄 모르는 조선의 경축의 밤이여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정의와 위대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밤
오, 우리는 궁지없이 노래하리라

아마도 감격에 북받치면
절로 흘러내리는것 눈물인가 봄니다
기쁜 날 환희의 10월명절
말로 다 터치지 못하는 격정이
눈물로 끓여 흘러내리니다

그이의 음성엔 차고넘쳐 목이 짝
메이고
웃으시며 흔들어주시는 손길은
가까이 달려가 잡고만싶어 가슴 젖어
드니
10월의 밤은 눈물의 밤이런듯

지옥을 흔들며 행진해가는
우렁찬 저 발구름소리엔 백동처와라
영원히 우리 당만 믿고 따르며
폭풍만리도 뚫고 헤쳐갈
우리 심장 박동소리가

원수님 높이 모시여
시간의 흐름따라 더욱 강대해지는
이 땅에
기어이 천하제일락원을 안아올릴
철석의 이 신념 열병광장의 메아리
되어
함차게 울려 퍼지노라
아,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고맙습니다!

리송일

하늘땅이 둥하고
천만심장을 격동시켰다
영광의 10월경축광장 단상에서
우리 원수님 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물노니 동서고급에 언제 있었던가
나라의 최고정도자께서

아, 원수님!
누구나 한결같이 소중히 불러보며
우러르는 눈가에 맺히는 뜨거운것
이여
어찌합니까 얇이 흐려져 닦아내려도
자꾸만 샘솟는 우리의 눈물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극진한 정이

둘러보면 지구상 그 어디에서나
병마로 고통에 허덕이는 무수한
사람들
그 얼마나 한탄과 비애의 곡성 터뜨
림니까
재난이 그칠새없이 들이닥치는
거리와 마을들엔 아픔의 눈물 마를줄

눈 물

김송림

시위대 오마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
고갈 신념의 구호가 끊이지 울려
퍼졌다.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웅청년대
군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며 진
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돌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볼행진에서는 청

전과 변영의 진군길을 힘있게 다
그쳐나가는 공화국인민의 자긍심
과 드높은 열정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의 광안이 힘
쓸었던 개성시와 황해북도, 황해
남도의 피해지역들에 훌륭히 이
터 선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경사
가 펼쳐져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에 기쁨을 주었
다. 련이어 겹쳐진 재해로 혹심
하게 파괴되었던 협지에 황홀하
게 솟아난 집집의 장가마다에서
리쳐오른 로동당만세소리, 행복
넘치는 웃음소리는 그대로 인민의 환
희를 더해주며 10월의 하늘가에
끓여내며 메아리쳐갔다.

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은 자기
인민에게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적대국들에게는 커다란 심리적압
박을 가한 명연설이라고 하였다.
한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북
한의 당창건 75돌경축 열병식은 시
공간 장소, 형식, 방법, 규
모, 장비수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화려한 열병식
이라고 하였다.

최상의 대정치축전

로 끓여내어 울리었다.
친부모, 친형제같은 인민들
의 모습에서 열병대원들은 조국
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가는 수
호자의 궁지를 더욱 뜨겁게 새겨
안으며 피어린 항일대전과 전화
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군민대단
결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빛
나게 계승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수도의 수심리연도에 펼쳐진
열병대오의 장엄한 흐름과 평
양시민들의 열광찬된 환영은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인민
의 모습을 정히 새기고 장장
75성장 인민을 위해 밀사복무하
고 인민의 몸과 리상을 현실로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어머니라 부르며 영원히 받아들여
갈 불길속에서 마련된 군민대단
결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빛
나게 계승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수도의 수심리연도에 펼쳐진
열병대오의 장엄한 흐름과 평
양시민들의 열광찬된 환영은

년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
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억만자루의 품을 들어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
장들로 여세계 키운 조선로동당
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흠모의
마음이 우렁찬 함성으로 분출되
었다.
또한 조선로동당창건 75돌경축
대집단지초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는 세상이 부러워할 문명을
창조하며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
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새로운 발

진과 변영의 진군길을 힘있게 다
그쳐나가는 공화국인민의 자긍심
과 드높은 열정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의 광안이 힘
쓸었던 개성시와 황해북도, 황해
남도의 피해지역들에 훌륭히 이
터 선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경사
가 펼쳐져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에 기쁨을 주었
다. 련이어 겹쳐진 재해로 혹심
하게 파괴되었던 협지에 황홀하
게 솟아난 집집의 장가마다에서
리쳐오른 로동당만세소리, 행복
넘치는 웃음소리는 그대로 인민의 환
희를 더해주며 10월의 하늘가에
끓여내며 메아리쳐갔다.

《KBS》, 《런닝뉴스》, 《한
의 당창건 75돌경축 열병식은 시
공간 장소, 형식, 방법, 규
모, 장비수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화려한 열병식
이라고 하였다.

◆ ◆ ◆ 친절한 명절봉사, 기쁨넘친 웃음소리 ◆ ◆ ◆

면서 뜻깊은 명절날에 인민을 위
해 봉사를 하는 궁지가 가슴에
딱 차넘친다고 말하였다.
대성백화점에서는 명절봉사를
위한 시식회를 여러번 진행하여
로리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
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가
하면 증구역에 위치한 만물식당

에서는 갖가지 요리들을 품들여
준비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이 명
절을 즐겁게 쇠도록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지방의 봉사지들에서도 인민
들이 명절봉사를 받으며 휴식의
한때를 윤택하고 인상깊게 보내
주시는 분이시다. 《어머니조국을 위해

일을 더 잘해나가겠다.》는 심경
들을 표시하였다.
봉사자들도 인민을 위해 그
어떤 산산도 앞세우지 않는
대중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
겠다고, 인민의 봉사자된 궁지와
자부심을 더 부뚝이 느낀 10월
명절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
였다.

뜻깊은 10월명절을 즐겁게 보
내며 각지의 인민들은 어머니당
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뜨겁게
감사하였다.
본사기자

행사장주변을 내맞춤환
하게 밝힌 대규모조명, 웅장
한 평양의 야경, 관현악단과
군악단의 장려한 음악, 무인
기들의 립체적인 촬영, 형형
색색의 불꽃놀이 등 화려한
색채와 신기술을 동원함으로
써 무겁고 어두운 열병식의
관례를 깨고 《세련미와 화
려함의 극치를 이룬 불빛열
병식》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전투기편대들의 정교한 교
예비행장면, 전투기들이 불
꽃을 쏘면서 김일성광장의
하늘을 수놓는 장면, LED조
명이 장착된 전투기들이 평
양하늘을 가르며 화려한 불
빛을 뿜내는 장면 등은 《가
장 불거리가 많은 열병식》으
로 만든 계기였다고 하였다.
멋진 백마기마대, 군중,
병종별로 다양한 색깔과
형식의 현대화된 군복과 첨단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한 특
공군은 물론 신형방위탄과
보호복을 착용한 생화학부
까지 이어진 최대규모의 열
병식행렬, 현대화된 각종 전
술, 전략무기들의 행렬은 어
둑속에서 조명을 받아 더욱
돋보이면서 세계를 열병식
경에 빠뜨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의 당창건
75돌 열병식은 막강한 군
사력, 높은 문명수준을 남
김없이 파시한 최상, 최대
의 열병식, 전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화려한 열병식이
었다고 하였다.

《전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화려한 열병식》
의 열병식, 전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화려한 열병식이
었다고 하였다.

